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정희시·김강식·이영봉 의원,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 제3차 회의

기사승인 [2022-01-21 15:56]



경기도의회 정희시·김강식·이영봉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렛츠 디엠지(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 제3차 회의를 진행 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제공 = 경기도의회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경기도의회 정희시(추진협의회 단장, 더민주, 군포2)·김강식(더민주, 수원10)·이영봉(더민주, 의정부2)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렛츠 디엠지(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가졌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DMZ정책과장,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먼저 2022년도 렛츠 디엠지 평화예술제의 추진 체계 구성 방향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으며, 경기도에서는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단위사업 간 연계·통합 추진 △콘텐츠 다양화 대중성 확보 △사업수탁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라는 선결 과제에 대한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김강식 의원은 “사업이 공급자적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돼 수요자인 도민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고,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부족한 면도 존재했다”면서 “이를 감안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제도상 미비점이나 제약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조례 개정 등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서 다음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시 단장은 “찾아가는 렛츠 디엠지 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보다 풍성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예산 증액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안건으로는 ‘디엠지 런(DMZ RUN)’사업에 대한 평가와 2022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년도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참가자 저조, 참가비 부담, 지역주민 참여 연계 부족 등의 개선을 위한 의견 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김강식 의원은 “달리는 것에 익숙한 젊은 층의 트렌드에 맞춘 홍보가 필요하며, 사업 참가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관광적인 요소를 기획에 가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시 단장은 “사업의 접근성과 홍보 부족 등 문제 해소를 위해 평화와 관련된 시민단체 등 유관 기관 지역 단체들과 소통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다음 추진협의회 회의에서 사업 현장을 방문·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렛츠 디엠지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는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관련 사업 간 유기적 연계 체계화 방안을 모색하고, 조직 구성·제도 개선 검토 등 다각적인 논의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주홍 기자 ju0047@naver.com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